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탐구 주제로 삼아 바람직한 삶의 이상을 제안하고 올바른 판단과 행위의 근거인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실생활의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 주제로 삼아 환경오염, 연명 치료 중단, 사형 제도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한 규범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 ① (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② (가):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실태 조사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③ (나):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검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④ (나): 윤리학은 현실 문제에 대한 도덕 원리의 적용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⑤ (가), (나):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결론 도출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2. 갑 사상이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개인은 가족, 이웃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할 기회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도 없다.
 을: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와 양립 가능하다.

- ①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무시한다.
- ②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구체적 맥락을 배제해야 함을 무시한다.
- ③ 도덕 판단의 기준이 행위의 동기가 아닌 결과임을 간과한다.
- ④ 사회 전체의 행복 최대화가 보편적 도덕 원리임을 간과한다.
- ⑤ 유용성의 합리적 계산보다 공동체의 전통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3.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그리하여 개인 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심한 비도덕성이 집단 간의 관계에 나타난다. 따라서 집단 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는 투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보 기>

ㄱ.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ㄴ.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은 설득과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ㄷ.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ㄹ.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4.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침묵시키려는 의견이 오류라고 확신할 수 없고, 설령 오류라고 해도 그것을 침묵시키는 것은 해악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공인된 견해도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그것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① 토론에서는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은 침묵시켜야 한다.
- ② 토론의 전제 조건은 참이라고 검증된 진술만을 발언하는 것이다.
- ③ 토론에서는 진리로 공인된 견해를 비판할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 ④ 토론의 자유와 인간의 완벽한 지적 능력이 진리 추구의 조건이다.
- ⑤ 토론에서 오류라고 합의된 소수 의견도 진리 탐구에 기여한다.

5. 갑, 을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신을 찬양하고 덕을 찬양하는 시(詩)만을 이 나라에 받아들여야 한다. 시를 통해 즐거움만 누리려 한다면 이성 대신 즐거움과 괴로움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을: 예술가는 도덕적 공감을 지니지 않는다. 예술가에게 도덕적 공감은 용납될 수 없는 구태의연한 양식에 불과하다. 예술가는 단지 아름다움의 창조자일 뿐이다.

<사례>

A는 웹툰 작가로 포털 사이트에 작품을 연재할 예정이다. 어떤 작품을 그려야 할지 A는 고민하고 있다.

- ① 갑: 독자들이 오로지 즐거움만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 ② 갑: 독자들이 도덕적 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 ③ 을: 독자들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달하도록 하세요.
- ④ 을: 독자들에게 도덕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 ⑤ 갑, 을: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세요.

6.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심장과 폐가 활동한다 해도, 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상실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로 볼 수 없다. 생명체의 활동에 있어서 뇌가 결정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 뇌사자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아 보다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으므로 공익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뇌사의 오판 가능성을 제기 하지만, 뇌사판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 기>

ㄱ.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ㄴ. 뇌사 판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있는가?
 ㄷ. 뇌사자 장기 이식은 사회적 유용성의 증진을 저해하는가?
 ㄹ. 심폐 기능의 불가역적 상실만을 죽음으로 판정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종교적 인간은 탄생, 결혼, 죽음과 같은 사건을 겪으며 거룩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그 존재는 이 세계 안에 스스로 현현(顯現)하여 이 세계를 성화(聖化)시킨다. 그러나 세속적 인간은 자신만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며, 초월적 존재를 향한 모든 호소를 거절한다. 그들에게 거룩한 존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세속적 인간은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탄생, 결혼, 죽음을 기리는 의식이 세속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는 종교적 현상이 관찰된다.

- ① 종교적 인간은 스스로 성스럽게 드러나는 거룩한 존재를 믿는다.
 ②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한다.
 ③ 종교 의식과 무관한 세속적 일상 의례에도 신성성이 깃들어 있다.
 ④ 세속적 인간은 통과 의례가 갖는 종교적 의미를 자각하지 못한다.
 ⑤ 세속적 인간은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워진다고 믿는다.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 인생의 악을 중지시켜 준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열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자(賢者)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을: 죽음은 현존재의 종말이다. 하지만 현존재의 죽음을 단순히 다른 생물의 종말에 입각해 파악해서는 안 된다. 현존재는 죽음을 향한 존재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과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 ① 갑: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② 갑: 죽음이라는 실체를 수용해야 불멸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다.
 ③ 을: 인간은 죽음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④ 을: 현존재는 죽음을 의식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고려하는 존재이다.
 ⑤ 갑, 을: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보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자연 안에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대상들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것은 도덕성을 크게 촉진하는 감정을 약화시켜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p> <p>을: 일부 동물들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우리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그 공동체는 보존될 것이다.</p> <p>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인 대지의 구성원이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p>
(나)	<p style="text-align: right;"><범례> A: 갑만의 입장 B: 병만의 입장 C: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p>

<보 기>

ㄱ. A: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존재는 이성적 존재뿐이다.
 ㄴ. B: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
 ㄷ. C: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는 행위만이 옳다.
 ㄹ. D: 인간성을 해친다는 것이 동물 학대가 그른 주된 이유는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정보에 대한 접근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생산과 유통은 국가가 규제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해악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혐오표현의 유해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할 책무가 있습니다.</p>	<p>정보에 대한 접근은 물론 생산과 유통도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합니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혐오표현의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일률적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p>
<p>갑</p>	<p>을</p>

- ① 갑: 국가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② 갑: 국가는 혐오표현의 유해성을 판단할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③ 을: 국가는 정보의 접근이 아닌 생산·유통의 자유만 보장해야 한다.
 ④ 을: 국가는 해악 금지 원칙에 따라 정보 생산을 규제해야 한다.
 ⑤ 갑, 을: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양립 가능하다.

11.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가 부모님 모시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네. 살림살이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부모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지. 다만 자네가 아버이를 섬길 때 증자(曾子)를 본받았으면 하네. 증자는 아버지께 끼니마다 반드시 고기와 술을 차려 드렸다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아버지께 여쭙었고, 아버지께서 남은 음식이 있다고 되물으시면 증자는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네. 증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핀 것이지. 그런데 증자를 봉양한 증자의 아들은 남은 음식이 있느냐는 증자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지. 증자의 아들은 아버지께 다시 음식을 올리려 한 것이네. 증자의 아들은 입과 몸을 봉양한 것에 지나지 않고 증자는 뜻을 봉양한 것이라 할 수 있지. ... (후략).

- ① 자식은 아버지가 가진 의중을 헤아려서 봉양해야 한다.
- ② 자식은 아버지의 옳지 못한 행동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 ③ 아버이를 봉양하는 까닭은 자식에게 봉양받기 위함일 뿐이다.
- ④ 아버이를 섬기는 방식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달리해야 한다.
- ⑤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아버지보다 이웃을 더 배려해야 한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누구든 그가 처벌받아야 할 행동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아무리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도 삶과 죽음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다.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을: 누구든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기꺼이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공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며, 이것이 인간적 정의의 기초이다. 사형보다 중신 노역형이 공리에 부합한다.

- ① 갑: 범죄자는 범행이 아닌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 ② 갑: 사형은 살인범을 수단으로서만 대하려는 응분의 보복 행위이다.
- ③ 을: 중신 노역형은 비공개로 집행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 ④ 을: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최대이므로 사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한다.
- ⑤ 갑, 을: 형벌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공적인 정의를 실현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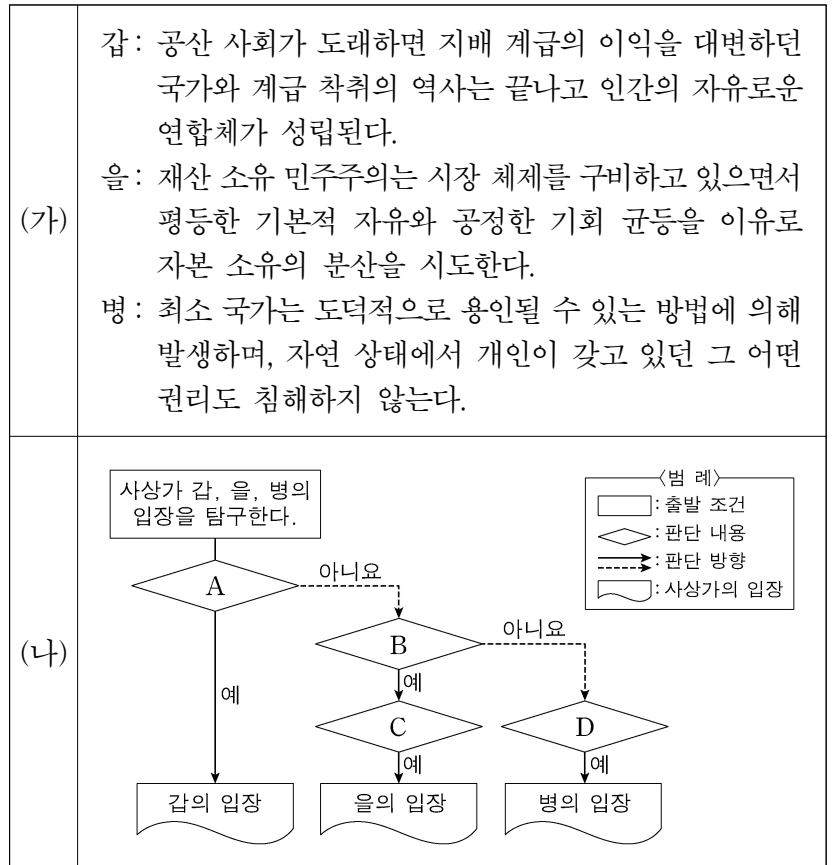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본을 위해 수행될 뿐이다. 분업은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지만, 노동자는 생산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 이외의 다른 모든 정신적 능력들을 잃어버렸다. 이는 예외 없는 현상이다.

을: 노동을 은총 상태를 확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 청교도는 철저한 노동 의무의 수행을 통해 신의 나라에 도달하려고 시도하였다. 동시에 노동 계급에 강제된 엄격한 금욕이 자본주의의 노동생산성을 강력히 촉진시켰다.

- ① 갑은 자본주의에서 정신적 능력 회복으로 소외가 극복된다고 본다.
- ② 갑은 분업이 노동자의 정신적 능력 쇠퇴와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본다.
- ③ 을은 금욕과 결합된 노동 의무가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본다.
- ④ 을은 청교도가 직업 노동을 종교적 실천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 ⑤ 갑은 분업 노동, 을은 소명 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14.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를 지향해야 하는가?
 ㄴ. B: 사유 재산의 불평등은 모두의 이익을 보장해야만 정당한가?
 ㄷ. C: 무지의 배일 속의 사람은 자기 이익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가?
 ㄹ. D: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키게 됩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또한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 결과가 미칠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여 연구 및 개발과 그 활용에 관한 사회적 책임까지 다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과학자에게 그러한 책임까지 돌리면 과학의 발전이 지체됩니다. 연구 결과가 활용되어 사회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도 그것은 연구 결과를 활용한 사람들의 책임일 뿐입니다.

을: 과학의 발전이 지체될 수 있지만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과학의 발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간적 속도가 아니라 윤리적 방향입니다.

- ①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하는가?
- ② 과학자는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가?
- ③ 과학자는 과학 연구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야 하는가?
- ④ 과학자에게 내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도 부과해야 하는가?
- ⑤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면 과학 발전이 지체될 수 있는가?

